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에 대한 태도 유형이 자선 및 기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 정 훈(원광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선과 기부라는 가치소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개인적 특성과 시민 사회 참여도,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라 자선 및 기부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총 275부의 질문지가 분석을 위한 최종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질문지는 독립변수로서 성별, 종교, 경제수준 정도, 시민단체 회원여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종속변수로서는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선과 기부에 대한 태도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돈에 대한 태도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강박성, 소비 지향성, 관리 지향성 의 3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 및 관리형, 강박 및 소비형, 관리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기부 및 자선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는 4개의 하위요인들이 추출되었는데 냉소성, 자선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필요성, 동기의 이타성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람들의 자선행동을 개인들의 이타적 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선단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았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보다 자선행동에 대한 냉소적 경향이 낮았으며, 자선단체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낮았다.

둘째, 개인의 시민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는 규칙적,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자선에 대한 냉소적 경향이 낮았으며, 자선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회원들보다 자선이 이타적 행동경향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셋째, 돈태도 유형의 3유형 사이에는 자선에 대한 냉소적 경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강박소비형들이 자선에 대한 냉소적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관리형, 소비관리형 순이었다. 또한 자선단체에 대해서는 관리형, 강박소비형, 소비관리형 순으로 부정적 인식의 경향이 낮았다.